

혼 인 과 가 정 생 활

행복한 가정운동협의회 총재

천주교 춘천교구장

박 토 마 주교

친애하는 형제 자매분,

혼인과 가정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교우들이 현대 사회의 위험한 견해와 사악한 행습에 빠지지 않도록, 본 주교는 혼인생활의 존엄성과 강박된 가정의 필수조건에 관한 이교서를 각 교우부부에게 보내 드립니다.

1. 혼인의 존엄성과 목적 : 혼인생활은 지극히 높고 거룩한 사명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부부의 결합으로 인간을 가장 위대한 창조사업에 참여케 하시고, 남녀의 사랑을 성화하시며, 그들이 서로 조화 함으로써 하느님의 사랑을 전파토록 하십니다. 혼인생활은 하느님이 인성에 결부시키신 자연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본시 거룩한 생활이며, 예수께서도 이 생활을 찬성 하시고 새로이 강복 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사람을 창조 하시사, 그가 홀로서는 것은 외롭다고 하시여, 그를 위해 평등한 배우자를 조성하시고, 저들에게 서로 일치함으로써 인류를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으니, 이때에 부부의 결합과 혼인생활을 세우셨습니다. 예수께서도 혼인잔치에 참여하시여, 신랑과 신부를 위해 첫번째의 기적을 행하심으로써 혼인을 축복 하였고 혼인을 성사의 위엄으로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사도성바오로께서도 부부의 사랑과 그들의 일치함은, 그리스도와 성교회의 서로에 대한 사랑과 서로 일치함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혼인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자녀를 낳고 기르며 보호하고 교육시키는데 있습니다. 세상 만물중에 제일 고귀한 존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을 창조 하는데 남녀가 하느님과 협력하고 서로 협조하는 것은 지극히 위대한 일이

며, 하느님께서 혼인을 세우신 최고의 목적입니다.

혼인생활의 또하나의 중요한 목적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을 조장하고 성취하는데 있습니다. 이 사랑도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요, 하느님께서 허락하시고 강복하신 것이며, 인간으로 하여금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에 참여케 하는 것입니다.

이 두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느님께서서는 부부들에게 한 몸과 같이 일치하라고 하셨으니, 이 일치하는 부부행위와 이에 따르는 쾌락도 깨끗하고 신성한 것입니다. 부부생활 가운데 부부의 일치행위에 의해서 새 영혼이 거주하게 될 새 육신을 번식합니다.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을 사랑하며 하느님을 섬길 사람이 태어나게 됩니다. 동시에 이 행위에 의해서 부부의 사랑은 성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혼인생활은 하느님께서 세우시고 당신 풍요한 은혜로 강복하신 사명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배풀어 주신 이 은혜에 수반되는 책임도 있습니다.

2. 부부가 서로 하여야 할 본분 : 혼인 할 때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완전하고도 이기심 없는 사랑과 변함이 없는 충성을 서로 약속합니다. 서로의 결점을 양해하고 용서할 것과 죽을 때까지 서로 화목하고 충실할 것을 약속하며, 이와 같은 사랑을 타인에게 분배하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혼인생활을 해 나가는데는 이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일생동안 이 약속을 지켜 나가는 쉽지 않습니다. 두 마음이 완전히 맞는 사람은 세상에 없기 때문에 모든 부부가 서로간에 오해하는 일과 참기어려운 때가 있겠

읍니다마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불가불 부부간에 오해 혹은 불목이 있을지라도 속히 서로 용서하여 다시 회복하도록 노력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부부양자가 불신을 일으키는 심한 유혹도 당할 수 있지만 하느님의 조력으로 이러한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부부양자는 평등한 배우자로 서로 존경하고 서로의 양심을 살리며 서로의 참된 행복을 조장하여야 합니다. 이 세상 행복 뿐만 아니라 서로의 영원한 행복도 함께 누리도록 같이 협력하여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당신 목숨을 바치셨드시 부부도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여야만 서로의 결점을 양해하고 서로 충실하며, 서로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여야 할 본분 : 자녀를 낳게 되면 부모는 그들을 사랑하고 힘을 다하여 그들을 기르고 보호하며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세속적인 교육도 중요하지만, 자녀의 구령을 위한 교육은 더욱 중요하고도 필요하기 때문에 부모는 특히 신앙과 도의 교육에 온갖 힘을 다하여야 합니다. 부모가 어린 아이들의 마음에 신앙과 도덕의 씨를 정성껏 심고, 악행의 뿌리를 철저히 뽑아주며, 지도와 표양으로 그들의 마음을 훌륭하게 배양하여야만, 앞으로 그들의 마음에 신앙과 덕행의 꽃이 필 것이며 후에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자녀의 구령과 성화가 자기의 책임임을 알고, 그리고 자녀들에 관하여 부모들이 하느님 앞에서 심판 받을것을 명심하여, 자녀들이 타락하지 않도록 부모는 열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녀를 낳고 키우며 보호하고 교육시키는 이 중대한 책임을 다하는데 부모양자의 항구한 협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만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갈릴 수 없는 결합에만 이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자녀의 출생과 양육 그리고 부부의 사랑과 조화 이것들은 혼인생활의 본질이므로 이 두가지 목적을 이룩하기 위해서 힘을 쓰지 않는 부부는 하느님의 뜻을 어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성취하지도 못하며, 복된 가정을 이루어 나가지도 못합니다. 복된 가정의 기

초는 사랑입니다. 즉 부부간의 사랑과 부모와 자녀간의 사랑입니다.

4. 가족 계획 : 교회도 인구조절 문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기우리고 있습니다. 온갖 가족계획을 교회가 일체 거절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족계획을 이행 하는데 있어서 부부는 하느님의 자연법칙을 어기지 말고, 서로 모욕하지도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공유산이나 부자연적인 피임행위를 하는 부부는 하느님의 은혜를 향유 하면서 하느님의 뜻을 어기는 사람들입니다.

모체 안에 있는 태아 일지라도 잉태된 순간부터 영혼과 육신과 생명을 지닌 사람이기 때문에 그 태아를 죽이는 것은 무서운 살인 죄입니다. 남을 죽이는 행위가 일상 막중한 죄라고 한다면, 죄없는 태아, 자기의 몸과 피로 형성된 태아를 죽이는 행위는 얼마나 큰 죄가 되겠습니까? 잉태된 태아를 죽일 수 있다면 이미 태어난 아이를 죽이지 못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부모의 개인 이익이나 가정의 이익이나, 혹은 어머니의 생명이나 건강을 위하여 이미 태어난 아이를 살해 못하듯이, 이와 같은 이유로 잉태된 태아도 직접 죽여서는 안됩니다. 임신과 관련되지 않는 병이나, 혹은 자궁의 임신으로 인하여 위독한 어머니가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기 위한 치료나 수술로 태아의 희생을 목인할 수밖에 없는 긴급피난 조치는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반드시 사제나, 하느님의 법을 잘 아는 전문가와 의논하여 결정할 일입니다.

그러나 알고 원해서 태아를 일부러 죽인다면 언제든지 살인죄입니다. 루푸를 사용하는 것도 피임행위가 아니라, 이미 잉태된 태아를 자궁속에서 살지 못하게 하는 행위이므로 이것도 살인죄입니다. 임신 되지 않도록 고무를 사용하는 것과 질외에 사정하는 것도 부부행위는 아닙니다. 정관 수술이나 난관 수술을 하거나 불임약을 먹는 것도 부부행위를 무효화 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모든 피임 방법은 하느님의 뜻을 어기는 일이며, 자연법칙을 어기는 일입니다. 하느님의 뜻에 따라 하느님의 은혜를 받아 써야 합니다. 쾌락만을 위하여 하느님의 은혜를 이용하고

여기에 따른 본분을 거절 한다면, 이는 하느님 은혜에 대한 멸시이므로 하느님 자신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부부행위는 자녀를 낳는 행위이며 부부의 신성한 사랑을 표시하고 이르는 행위인데, 피임법을 사용하는 부부행위를 살펴본다면, 그것은 자녀를 낳는 것도 아니요, 서로 사랑하는 것도 아니며, 다만 욕정을 위해서 서로 이용하고 서로 모욕하는 행위에 불과 합니다. 부부가 서로 미워하면서 서로에 대한 그 미움을 실현하기 위하여 사랑의 행위를 이용한다면 이는 모순된 일이요 상상하지도 못할 일입니다. 이와같이 자녀를 번식하기 위한 행위를 일부러 태어나지 못하도록 헛되게 하는 것은 자연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하는 부부는 서로 배우자로서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성욕을 만족 시켜주는 기계로써 서로 상대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지 말아야 할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 주기법에 따라 한동안 부부행위를 피하는 것은 하느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는 부부행위를 헛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의 법을 준행하기 위해서 그만큼 자기 욕망을 억제 하므로 하느님의 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는 주기법을 이행 하는데에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꾸준한 연구와 실험 결과로 이제 주기법의 여러가지 문제점은 거의 해결 되었습니다. 현재, 교구의 각 병원에서는 이 자연적인 가족계획 방법을 전문적으로 가르치고 있고, 여러 본당에도 이 방법을 가르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연적인 방법을 사용 하려면 반듯이 잘 배운 연후에 이행 하여야 합니다. 이전에 주기법으로 실패한 대다수의 부부도 확실히 알지 못하면서 짐작만으로 해 보았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새로운 방법도 잘 배우지 않고 사용하면 다시 실패할 것 입니다. 그렇게 되면 흔히 자기 잘못을 책망하지 않고 방법 자체가 나쁘다고 비난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족 계획을 하고자하는 교우 부부들은 먼저 병원에서 혹은 본당에서 이 새롭고 자연적인 방법을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실행하는 때에는 아무래도 신앙을 위해 자기의 욕망을 억제 하여야 하므로 본당 신부님께 영신적인 지도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과 하느님의 은총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아야, 신앙을 위해서 절제 할수도 있을 것이니, 신부님의 영신적 지도는 꼭 필요 합니다.

5. 가정생활의 실행 : 부부가 죽을 때까지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며 신의를 지켜야 할 본분과 그리고 자녀를 기르고 보호하며 양육할 본분, 이 두가지 책임은 엄숙하고도 어려운 책임입니다. 특히 사회에 이혼이 허용되고 불신이 널리 퍼져 있으며, 인공유산과 피임에 대한 선전이 성행되고 있으니 이러한 병폐에 빠지지 않기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양자가 같은 신앙을 믿고, 이를 충실히 봉행하고자 한다면, 서로의 양심을 더욱 살리게 될 것이며 하느님의 법을 지키에도 서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두분은 자녀의 영신적 교육과 지도의 중요성도 깊이 깨달아서 신앙과 교리를 말씀으로도 가르칠 것이고, 표양으로도 모범을 보여 자녀를 덕행의 길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는 하느님께 받은 신앙과 은총을 제일 고귀한 소유물로 존중하고 이와 같은 견해를 자녀에게 전하여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안에 생활 하시고 우리가 하느님의 친생명으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행복은 그리스도께서 당신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를 위해 구하신 것이며, 우리 조상들도 이 행복을 자기 생명보다도 더욱 존중하여 신앙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과 은총의 생명을 버리지 않도록 희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특히 부모가 자녀와 함께 한 가족으로서 매일 하느님께 기도를 드린다면, 가정에는 하느님의 강복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고, 따라서 자녀들도 이같이 좋은 습관을 본받게 될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기도 드린날은 당일 서로 모욕하는 피임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자녀와 함께 기도 드린날, 당일에 새로 태어날 아기를 죽이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부부중에 하나가 신자가 아닌 경우에, 교우되

는 배우자는 자기의 신앙을 버리지 않도록 굳은 결심을 하여야 하고, 신앙에 따라 하느님의 법칙과 교회의 규칙을 준행하도록 온갖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양심에 장애되는 것을 신자 아닌분에게 설명하고 협조하도록 권면 하여야 합니다. 또한 비신자인 분도 역시 자기 배우자의 신앙과 양심을 이해 하도록 힘쓰고 배우자의 신앙을 조금도 방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피임과 유산을 금하는 법은 교회의 규칙 일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자연 법칙이므로 신자가 아닌 사람도 순명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이와 같은 행위가 비신자 자신의 양심에는 어긋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배우자의 양심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를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6. 가정생활의 보조 : 이 여러가지 본분을 충실히 이행함에 있어서 다만 사람의 힘으로는 다

할수 없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사람에게 어떠한 책임을 맡기실 때에는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힘을 함께 주십니다. 부부는 혼인 성사를 받을때에 충실하고 원만한 혼인생활을 이루도록 풍성한 생명의 은총을 받았고, 혼인생활에 따르는 여러가지 본분을 다할수 있도록 충분한 하느님의 조력을 받기로 되었읍니다. 이 하느님의 은총과 조력을 잘 받아쓰므로서, 부부는 완전히 서로 사랑하고 배우자로서 서로 존경하고 충실하며,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자녀를 감사히 받아들여, 사랑으로 기르고 보호하므로서 복된 가정을 세워 함께 영원한 행복을 이룰수 있습니다.

무릇 가정에서의 사랑은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화신이며 삼위 일체의 친 사랑의 유형이므로 천국 행복의 증표 입니다.

〈病院事故〉

患者가 病院入院中에 오히려 事故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즉 手術後 염증이 생기거나 患者가 침대에서 떨어지는 등의 사고인데 최근 美國에서는 이러한 病院內 사고를 면밀히 검토하고 對策을 논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 美國의 病院에서 크고 작은 事故가 發生하는 比率은 約 8%로 入院환자 12名중 한 명 꼴이다. 美國 政府통계에 의하면 3,500만 入院人口중 260만이 불의의 事故를 당한다는 것이다.

「펜실베이니아」의 한 病院에서는 手術患者들이 보통경우의 5배 가까운 感染率을 보였고 病院업무검사에서 수술실의 환기장치가 쓰레기 하치장 쪽으로 나 있어 부패한 공기가 수술실로 흘러드는 것을 발견했다.

「코네티컷」의 한 産院에서는 별다른 이유없이 新生兒들이 높은 감염율을 나타냈는데 그 원인은 신생아 목욕용 비누液이 낡은 「파이프」를 통해 공급되었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病院內 사고는 現代醫術이 기술적으로 復雜·광대해서라기보다는 病院안에서의 일상생활중에 생기는 것이다.

간호원이 잘못된 약이나 주사를 투여하는 것도 가끔 일어나는 사고중의 하나이며 輸血과정에서 생기는 感染, 檢査에 쓰이는 導尿管 「 튜브」가 잘못되어서 생기는 炎症, 電氣治療中の 危險도 事故의 要因들이다.

美國에서는 이러한 事故를 防止하기 위해서 病院들은 연대책임保險制를 실시하고 있다.

어떤 간호원이나 한 의사가 잘못해서 事故가 생겨도 病院측이 전반적으로 責任을 진다는 것이다. 患者의 日常生活을 돌보는 安全要員을 고용하는 病院도 있다. 사고율이 높은 의사나 간호원에게 엄격한 再教育을 시키는 것도 실시중의 대책의 하나다. 우리 醫藥界에서도 관심을 두어야 할 문제이라 하겠다.

〈美「월드·리포트」誌에서〉